

[37] 1월

초 1일(무진) 맑음. 새벽 2시께 어머니 앞머리에 들어가 되었다. 늦게 남양(南陽) 아저씨와 * 신사과(慎司果)가 와서 이야기했다. 저녁에 어머니께 하직하고 영으로 돌아왔다. 심회가 몹시 산란하여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초 2일(기사) 맑음. 일찍 나가 병기들을 검열했다. 이날은 나라의 * 제삿날(國忌日)이다. 부장(部將) 이계(李繼)가 비변사(備邊司)의 공문을 가지고 왔다.

【주】 나라의 제삿날-명종 인순 왕후 김씨(明宗仁順王後金氏)

초 3일(경오) 맑음. 새벽에 바다로 내려갔다. 아우 여필(汝弼)과 여러 조카들이 배위에까지 따라 왔다. 날이 밝아 배를 띄우며 서로 작별했다. 정오에 곡포(曲浦 * 남해군 동면 화계리) 바다에 이르니 동풍이 약간 불었다. 상주포(尙州浦 * 이동면 상주리) 앞 바다에 이르러 바람이 자므로 노를 재촉하여 자정에 사랑(蛇梁 * 통영군 위량면 금평리)에 닿아 거기서 잤다.

초 4일(신미) 맑음. 새벽 2시쯤에 첫 나발을 불고 날이 새어 배를 띄웠다. 이여념(李汝恬)이 와서 보므로 진중 소식을 물으니 모두 여전하다고 했다. 오후 3시쯤부터 가랑비가 보슬보슬 뿌리가 시작했다. 걸망포(乞望浦 * 통영군 영남면)에 이르니 경상 수사(* 권준(權俊))가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우후(虞候 * 이몽구(李夢龜))는 먼저 배가 왔으나 취해서 인사불성이었다. 곧 자기의 배로 돌아갔다. 송한련(宋漢連)들이 말하기를 청어 천여마리 두름을 잡아서 널었는데 내가 간 동안 잡은 것이 모두 1천 8백여 두름이나 된다고했다. 비가 몹시 퍼부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여러 장수들이 저물녘에 떠났는데 길이 짙어 넘어진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기효근(奇孝謹), 김축(金軸)이 말미 받아서 돌아갔다.

초 5일(임신) 종일 비. 새벽에 우후(虞候)가 방답(* 장인(張麟), 사도(蛇渡 * 김완(金浣)) 두 첨사와 함께 문안하러 왔기에 세수를 빨리 하고 밖으로 나가 그들을 불러 모아 그동안에 지난 일을 물었다. 늦게 첨사 성윤문(僉使 成允文)과 우우후(右虞候) 이정충(李廷忠), 웅천 현감(熊川 縣監) 이운룡(李雲龍). 거제(巨濟) 현감 안위(安衛), 안골 만호(安骨 萬戶), 우수(禹壽), 옥포(玉浦) 만호 이담(李壘)이 왔다가 캄캄해진 뒤에 돌아들 갔다. 이몽상(李夢象)도 권(權) 수사의 심부름으로 와서 문안하고 돌아갔다.

초 6일(계유) 비. 오수(吳水)가 청어 1천 3백 10두름을 박춘양(朴春陽)이 7백 87두름을 바쳤는데, 하천수(河千壽)가 받아다가 말리기로 했다. 황득중(黃得中)은 2백 2두름을 바쳤다. 종일 비가 내렸다. 사도(蛇渡)가 술을 가지고 와서 군량을 5백여 석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초 7일(갑술) 맑음. 이른 아침에 이영남(李英男)과 줄아 지내는 여인이 와서 말하기를 권숙(權)이 덩벼 들기 때문에 피해 왔는데,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겠노라 고 말했다. 늦게 권수사와 우후(虞候), 사도(蛇渡), 방답(防踏)이 오고 권숙(權)도 왔다. 오후 2시에 견내량(見乃梁)의 북병장(伏兵將)인 삼천포 권관(三千浦權管)이 급히 보고하되, [항복한 왜놈 5명이 애산(厓山)으로부터 나왔다] 하므로 안골포 만호(安骨浦萬戶) 우수(禹壽)와 공태원(孔太元)을 뽑아 보냈다. 날씨가 몹시 차고 하늬바람이 매웠다.

초 8일(을해) 맑음. 입춘인데도 날씨가 몹시 추워서 마치 한겨울과 같이 매웠다. 아침에 우우후와 방답을 불서서 양식(藥食)을 같이 먹었다. 일찌기 항복한 왜인 5명이 들어왔다. 그 사연을 물으니 [저희 장수가 성질이 악하고 일도 너무 고되기 때문에 도망해 나와 항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이 가진 칼은 큰 것, 작은것 다 거두어 다락 속에 간직했다. 실상은 부산(釜山)에 있는 왜적이 아니요, 가덕(加德) 심안둔(沈安屯 * 島津殿의 음역)의 부하라고 했다.

초 9일(병자) 날이 음산하고 추워서 살을 에는 것 같았다. 오수(吳水)가 잡은 청어 3백 60두름을 하천수(河千壽)가 실어갔다. 각 처의 공문을 처결해서 나눠보냈다. 저물게 경상 수사가 와서 방어 대책을 토의했다. 서풍이 종일 불어서 배가 바다로 나가지 못했다.

초 10일(정축) 맑았으나 서풍이 세게 불었다. 이른 아침에 적이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점쳤더니 [수레에 바퀴가 없는 것 같다] (加車無輪)는 과가 나왔다. 다시 또 치니 [임금을 보고 모두들 기뻐하는 것 같다] (加見君王 喜)는 과가 나왔다. 줄은 과였다. 식후 대청에 나갔더니 우우후와 어란(於蘭 * 해남)이 보러 왔다. 사도(蛇渡)도 왔다. 세 위장(衛將)들을 시켜 체찰사(體察使)가 보낸 여러가지 물건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웅천(熊川), 곡

포(曲浦), 삼천포(三千浦), 적량(赤梁)도 보러 왔다.

11일(무인) 맑음. 서풍이 밤새도록 크게 불었다. 겨울보다 훨씬 추웠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늦게 거제가 와서 수사의 옳지 못한 일을 자세히 말했다. 광양(光陽 * 김성(金星))이 왔다.

12일(기묘) 맑았으나 서풍이 세게 불어 추위가 지독했다. 날이 거의 썰 무렵 꿈에 한곳에 이르러 영의정(領議政 * 유성룡(柳成龍))과 함께 이야기했다. 한동안 둘이 다 의관을 벗어 놓고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서로 나라 걱정을 털어 놓다가 끝내는 억울한 사정까지 쏟아 놓았다. 이윽고 바람이 불고 비가 퍼붓는 데도 흠어지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만일 서쪽의 적이 급히 들어오고 남쪽의 적까지 들어 덤비게 된다면 임금님이 어디로 가시랴하고 걱정만 되뇌니 더 할 말을 알지 못했다. 앞서 들건데, 영의정이 천식증으로 몹시 편찮다고 하더니 나왔는지 모르겠다. 글자점을 던져 보았더니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는 것 같다] (加風起浪)는 괘가 나왔다. 또 오늘 중으로 길 흉간에 무슨 소식을 들을런지 하고 점을 쳐 보니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 같아] (加貧得寶)는 괘가 나왔다. 이 괘는 참 좋다. 어제 저녁에 종 금(金)을 본영으로 보냈는데 바람이 심히 고약하니 염려된다. 늦게 나가서 각처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낙안(樂安)이 들어왔다. 웅천 현감(熊川 縣監)의 보고에 왜선 14척이 거제 금이포(金伊浦)에 들어와서 머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경상 우수사더러 삼도의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가 보도록 했다.

13일(경진) 맑음. 아침에 경상 우수사가 와서 견내량(見乃梁)으로 나간다고 아뢰고 서류를 내어 보냈다. 성균관(成均)을 다시 차려 놓는다는 선비들의 통문을 가지고 왔던 성균관의 종이 하직을 고했다. 이날 바람이 자고 날씨가 따뜻했다. 이날 저녁 달빛은 대낮 같고 바람 조차 없는데 홀로 앉았으니 심회가 산란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신흥수(申弘壽)를 불러 통수를 듣다가 밤 10시쯤에 잠들었다.

14일(신사)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더니 늦게는 바람이 자고 날씨도 따뜻한 것 같았다. 흥양(興陽 * 최희량(最希亮))이 들어왔다. 정사립(鄭思立)과 김대복(金大福)도 들어왔다. 조기(趙琦), 김숙(金)도 같이 왔다. 그편에 연안(延安)있는 옥(玉)의 외조모가 작고한 기별을 들었다. 밤 늦도록 이야기 했다.

15일(임오) 맑고 따뜻했다. 날이 썰 무렵에 망궐례(望闕禮)를 드렸다. 아침에 낙안(樂安 * 선의문(宣義門)), 흥양(興陽)을 불러 식사를 같이 했다. 늦게 대청에 나가서 서류를 처결한 다음 투항한 왜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먹였다. 낙안과 흥양의 전선(戰船)과 병기와 부속물 등 및 사부(射夫), 격군(格軍)들을 점검하니 낙안이 아주 영성했다고 한다. 이날 저녁 달빛이 한결 더 맑았다. 풍년이 들 징조라고 했다.

16일(계미) 맑고 서리가 눈처럼 왔다. 늦게 나갔다. 경상 수사와 우우후 등이 보러 오고 웅천도 와서 취해서 돌아갔다.

17일(갑신) 맑음. 아침에 방답 첨사(防蹙僉使 * 장인(張麟))가 말미를 받아 변존서(卞存緒), 이분(李芬 * 조카), 김숙(金)들과 같은 배로 나갔다. 심회가 편안하지 아니했다. 낮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후(* 이몽구)를 불러 활을 쓰는데, 성윤문(成允文)과 변익성(邊翼星)이 와서 함께 활을 쓰고 돌아갔다. 어둑에 강대수(姜大壽)들이 편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종금(金)이 16일에 본영에 도착했다]고 하고, [종경(京)이는 돌아온다]고 하며, [아들 회()는 오늘 은진(恩津)으로 떠난다]고 했다.

18일(을유) 아침부터 종일토록 군복을 말랐다. 늦게 곤양(昆陽 * 이수일(李守一))가 사천(泗川 * 기직남(奇直男))이 왔다가 취해 가지고 갔다. 동래 현령(東萊 縣令 * 정광좌(鄭光佐))이 급히 보고하되, [왜놈들이 많이 반역하는 눈치가 되고 또 * 심유격(沈遊擊 * 유경(惟敬))이 소서행장(小西行長)과 함께 정월 16일에 먼저 일본으로 갔다]고 했다.

19일(병술) 맑고 따스했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사도(蛇渡)가 여도(呂島)와 함께 왔고, 우후(虞候)와 곤양(昆陽)도 왔다. 경상 수사(慶尙水使)도 와 우우후(右虞候)를 불러 왔는데, 곤양(昆陽)이 술을 차려다 바치므로 조용히 이야기했다. 부산(釜山)서 빠져 나온 4명이 전하기를 심 유경(沈惟敬), 이 소서 행장(小西行長), 현소(玄蘇), 사택 정성(寺澤 正成) 소서비(小西飛)와 함께 이달 16일 새벽 바다를 건너 갔다하기에 양식 3말을 주어보냈다. 이날 저녁 박자방(朴自邦) 이 서(徐) 순찰사가 진중에 온다는 말로 여러 가지의 물건은 가지러 본영(本營 * 여수)으로 갔다. 이날 메주를 썼다.

20일(정해) 종일 비. 기운이 피곤하여 낮잠 반 시간을 잤다. 오후 1시쯤에 메주 만드는 것

을 끝내서 온돌에 넣었다. 낙안(* 선의문(宣義問))이 와서 [둔전(屯田)에서 추수한 벼를 실어왔다]고 했다.

21일(무자) 맑음. 아침에 나가서 체찰사에게 보내는 순천(順天) 관계의 서류를 작성했다. 식후 미조항 첨사(彌助項 僉使 * 성윤문(成允文))와 흥양(興陽 * 최희량(崔希亮))이 보러 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미조항은 말미를 청했다. 늦게 대청에 나가니 사도, 여도, 사천, 광양, 곡포가 보고 갔고 곤양도 왔다. 활 10순을 쏘았다.

22일(기축) 맑음. 아주 추웠고 바람조차 몹시 거칠었다. 종일 나가지 않았다. 늦게 경상 우후 이의득(李義得)이 와서 권수사의 경솔한 짓을 전했다. 이날 밤 바람이 차로 매우므로 아이들이 들어오기에 고생스러울 것이 걱정스러웠다.

23일(경인) 맑음. 바람이 잦다. 작은 형님의 제삿날이 되어서 나가지 않았다. 심사가 몹시 어지러웠다. 아침에 옷 없는 군사 17명에게 옷을 주었다. 한벌씩 더 주었다. 종일 바람이 험했다. 저녁에 가덕(加德)에 나온 김인복(金仁福)이 와서 헌신하므로 적의 정세를 물어 보았다. 밤 10시에 면()과 완(莞), 그리고 최대성(崔大成), 신여운(申汝潤), 박자방(朴自邦)이 본영으로부터 왔다. 어머니가 편안하시다는 편지를 받으니 기쁘기 한이 없다. 종(京)이 오고, 종 금이가 애수(愛壽) 및 금곡(金谷) 사는 종 한성(漢城), 공돌(孔石)들을 데리고 같이 왔다. 밤 자정애야 잠자리에 들었다. 눈이 두치나 내렸다. 근년에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날 밤 몹시 불편했다.

24일(신묘) 맑으나 북풍이 크게 일고 눈보라가 치면서 모래까지 날려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었고 배도 움직일 수 없었다. 새벽에 견내량 북병이 보고하되, [어제 왜놈1명이 북명한 곳에 와서 항복하며 들어오기를 청한다] 하므로 보내라고 회답했다. 늦게 좌우 우후와 사도가 보러 왔다.

25일(임진) 맑음.

26일(계사) 맑았으나 바람이 고르지 못했다. 나가서 공무를 보고 활을 쏘았다.

27일(갑오) 맑고 온화했다. 아침 후 나가서 장흥(長興 * 배흥립(裴興立))의 죄를 심의하고 흥양과 더불어 이야기했다. 늦게 경상 우도 순찰사(* 서성(徐))가 들어왔기에 오후 4시쯤에 우수사 진으로 가서 만나보고 자정애야 돌아왔다. 사도(蛇渡)의 진무(鎭無)가 화약을 훔치다가 붙들렸다.

28일(을미) 맑음. 늦게 나갔다. 정오에 순찰사가 와서 활도 쏘고 이야기도 했다. 순찰사가 나와 활쏘기를 겨루다가 7푼을 지고 섭섭한 기색이 없지 않았다. 우스웠다. 군관 세 사람 모두 졌다. 밤이 든 후 취해서 돌아갔다.

29일(병신) 종일 비. 비. 아침밥을 먹고 경상도 진으로 가서 순찰사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오후에 활을 쏘아 순찰사가 또 9푼으로 졌다. 김대복(金大福) 혼자서 활을 쏘고 적대를 듣다가 자정애야 헤어져 진으로 돌아갔다. 어둠 무렵에 화약을 훔친 사도(蛇渡) 사람이 도망갔다.

30일(정유) 비. 늦게 갔다. 나가서 군관들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천성만호(天城萬戶 * 윤홍년(尹弘年), 여도(呂島 * 김인영(金仁英)), 적량(赤梁 * 고여우(高汝友))들이 와 보고 갔다. 이날 저녁때 청주(淸州), 희남(喜男)의 종 4명과 준복(俊福)이 들어왔다.

[38] 2월

초 1일(무술) 아침에 흐렸다가 늦게 맑아졌다. 여러 장수들과 활을 쏘았다. 권숙(權)이 왔다가 취해서 갔다.

초 2일(기해) 맑고 따스했다. 울(蔚 * 아들)이 조기(趙琦)와 같은 배로 나갔다. 우후(虞候)도 갔다. 저녁에 사도(蛇渡)가 와서 [어사의 장계로 파견되었다]고 말하므로 곧 장계 초안을 작성했다.

초 3일(경자) 맑았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홀로 앉아서 아들이 떠나간 것을 생각하고 심회가 편치 않았다. 아침에 장계를 수정했다. 경상 수사가 보러 왔었다. 그편에 적량 만호(赤梁 萬戶) 고여우(高汝友)가 장담년(張聃年)에게 소송을 당한 관계로 순찰사가 장계를 올려 파녕하려 한다는 글을 보았다. 어둠녘에 어란 만호(於蘭萬戶)가 견내량(見乃梁) 북병한 곳으로부터 와서 아뢰되 [부산 왜놈 3명이 성주에서 항복한 사람을 거느리고 북병한 곳에 와서

장사하겠다 한다] 하므로 곧 장흥 부사(長興 府使 * 배흥립(裵興立))에게 전령하여 [내일 새벽으로 가서 타일러 쫓으라고 하였다. 이놈들이 어찌 물건을 사려고 온 것이라. 우리의 허실(虛實)을 엿보려 함일 것이다.

초 4일(신축) 맑음. 아침에 사도(蛇渡) 사람 진무성(陳武晟)에게 장계를 주어 보냈는데, 그 편에 영의정(* 유성룡(柳成龍))과 신식(申湜) 두 집에 가는 문안 편지도 함께 부쳤다. 늦게 흥양(興陽 * 최희량(崔希亮))이 와 보고 갔다. 오후에 활 10순을 쏘았다. 여도(呂島), 거제(巨濟), 당포(唐浦 * 안이명(安以命), 옥포(玉浦 * 이담(李曇))도 왔다가 갔다. 저녁나절 장흥이 복병한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왜놈들이 도로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초 5일(임인) 아침에 흐리다가 늦게 갠다. 사도, 장흥이 일찍 왔기에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식후에 권숙이 와서 돌아간다 하므로 종이, 먹 2개, 그리고 패도(佩刀)를 주어 보냈다. 늦게 삼도(三道)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위로하는 음식을 먹이고 겸하여 활도 쏘고 풍악도 잡혀 모두 취해 가지고 흠어졌다. 웅천(熊川 * 이운룡(李雲龍))이 손인갑(孫仁甲)과 좇아 지내던 여인을 데려 왔기 때문에 여러 장수들과 함께 가야금을 두어 곡조 들었다. 저녁 나절에 김이실(金已實)이 순천에서 돌아왔는데 그 편에 어머님이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고 다행하다. 우수사의 편지가 왔는데 군사에 대한 기일을 물리자는 것이다. 우습기도 하고 한심스러웠다.

초 6일(계묘) 맑음. 새벽에 뭍 10명을 거제로 보내어 배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게 했다. 침방에 천장 흠이 떨어진 곳이 많아 수리하도록 했다. 사도 첨사(蛇渡 僉使) 김완(金浣)이 조도 어사(調度 御使)의 장계로 인해서 파면되었다는 기별이 와서 본포(* 골사도)도 내보냈다. 순천 별감(別監) 유(兪)와 군관 장응진(張應軫)들을 처벌하고 나서 곧 다락으로 들어갔다. 송한련(宋漢連)이 송어를 잡아 가지고 왔기에 여도, 낙안, 흥양을 불러서 같이 먹었다. 적량(赤梁) 고여우(高汝友)가 큰 매를 가지고 왔으나 오른쪽 발가락이 모두 얼어서 무질어졌으니 어찌 하랴. 어찌 하랴. 초저녁께 잠시 땀을 내었다.

초 7일(갑진) 아침에 날이 흐리고 동풍이 크게 불었다. 심기가 불편했다. 늦게 나가서 군사들에게 음식을 풀어 먹였다. 장흥, 우후, 낙안, 흥양을 불러 이야기하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헤어졌다.

초 8일(을사) 맑음. 이른 아침에 녹도 만호(鹿島 萬戶 * 송여종(宋汝宗))가 보러 왔다. 아침에 벚나무 껍질을 벗겼다. 늦게 손인갑(孫仁甲)과 좇아지내던 여인이 들어왔다. 한동안 지난 후 오철(吳轍), 현응원(玄應元)을 불러 들어 군사에 대한 일을 물어 보았다. 저녁때 군량에 대한 장부를 만들고 흥양 둔전에서 배를 띄울 수 없었다. 유향(柳暻)을 떠나 보내려고 했는데 떠나지 못했다.

초 9일(병오) 맑음. 서풍이 크게 불어서 배가 다니지 못했다. 늦게 권(權)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활10순을 쏘았다. 저녁 나절에는 바람이 그쳤다. 견내량에 부산에 있는 왜선 2척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듣고서 웅천과 우후를 정찰하러 보냈다.

초 10일(정미) 날이 맑고 온화했다. 이날 일찌기 박춘양(朴春陽)이 대나무를 싣고 왔다. 늦게 나가서 태구생(太仇生)을 처벌했다. 저녁에는 창고를 지을 장소를 친히 가서 보았다. 아침에 웅천과 우우후가 견내량으로부터 돌아와서 왜인들이 겁내어 떠는 꼴을 이야기했다. 해질 무렵에 창녕(昌寧) 사람이 술을 가져와 바쳐 밤이 깊도록 마시다가 헤어졌다.

11일(무신) 맑음. 체찰사에게 가는 공문 서류를 만들어 보냈다. 보성(寶城)서 군량대는 일을 맡은 임찬(林瓚)이 소금 50섬을 싣어 갔다. 임달영(任達英)이 제주(濟州 * 이경록(李景祿))에서 돌아왔는데 제주의 편지와 박종백(朴宗伯)과 김응수(金應綏)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늦게 장흥과 우우후가 왔기에 또 낙안과 흥양을 불러서 활을 쏘았다. 날이 막 어두워질 무렵에 영등(永登 * 조계종(趙繼宗))이 그 소실을 데리고 술병을 들고 와서 마시기를 권했다. 조그맹이(小者 * 어떤 인물의 별명인듯)도 함께 왔다가 떨어뜨리고 갔다. 땀을 흘렸다.

12일(기유) 맑음. 일찌기 창녕 사람이 웅천 있는 별장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살대50개를 경상 수사에게 보냈다. 늦게 수사가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때 활을 쏘았는데 장흥과 흥양도 같이 쏘다가 해진 뒤에 헤어졌다. 조그맹이가 밤 들기 전에 돌아갔다.

13일(경술) 맑음. 식후에 나가서 기한을 어겨 늦게 온 강진(康津 * 이극신(李克新))의 죄를 다스렸다. 가리포(加里浦 * 이응표(李應彪))는 보고를 내고 늦게 왔으므로 타일러 보내었다. 영암 군수(靈岩郡守 * 박홍장(朴弘章))을 파면할 장계를 기초했다. 저녁때 어란(於蘭)이 돌아가고 임달영(任達英)도 돌아갔다. 제주 목사에게 청어, 대구, 화살대, 건시(乾), 삼색 부

채 등을 보냈다.

14일(신해) 맑음. 늦게 나가서 장계 초안을 수정했다. 동복(同福)서 원호 사무를 맡은 김덕린(金德麟)이 보러 왔다. 경상 수사가 썩떡과 초 한쌍을 보내 왔다. 낙안과 녹도들을 불러서 떡을 먹였다. 새 곳간에 지붕을 이었다. 얼마 뒤 강진(康津 *이극신(李克新))이 보러 왔기에 위로하고 술을 주었다. 저녁에 물을 부엌으로 끌어 들여 물 길는 수고를 덜게 했다. 이날 밤 바다위에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물결은 비단결 같은데, 혼자서 높은 다락 위에 기대었노라니 심사가 몹시 어지러워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흥양 유사(興陽 有司) 송상문(宋象文)이 와서 쌀과 벼를 합해 7성을 바치었다.

15일(임자) 새벽에 망궤례(望闕禮)를 드리려다 비가 보슬거리 마당이 젖었기 때문에 거행하지 못했다. 어두울 무렵에 들으니 우도(右道 *전라우도)에 항복한 왜인이 경상도의 왜인과 싸고서 도망할 계획을 꾸민다 하므로 전령을 놓아 통지했다. 아침에 화살대를 골라내어 큰 살대 1백 11개와 그 다음치 백 54를 옥지(玉只)에게 내어 주었다. 장계 초안을 수정했다. 늦게 나갔더니 웅천, 거제, 당포, 옥포, 우우후(*이정충(李廷忠)) 경상 우후(*이의득(李義得))들이 보러 왔다. 순천 둔전에서 추수한 벼를 내가 직접 보는 데서 받아들이게 했다. 동복(同福)의 군량을 대는 유사(有司) 김덕린(金德麟), 흥양의 송상문(宋象文)들이 돌아갔다. 저녁때 사슴 1마리에 노루 2마리를 사냥해 가지고 왔다. 이날 밤에는 달빛이 대낮처럼 밝고 비단결 같아서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랫사람은 밤 새도록 술이 취해서 노래를 불렀다.

16일(계축) 맑음. 아침에 장계 초안을 수정하고 늦게 나갔다. 장흥 부사, 우우후, 가리포가 와서 함께 활을 쏘았다. 요전번 진 군관들 편에서 한턱을 내어서 모두 술이 몹시 취해 가지고 흠어졌다. 이날 밤에 너무 취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다 누웠다 하면서 밤을 밝혔다. 봄철의 피곤한 기운이 벌써 이렇구나.

17일(갑인) 흐림.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식후에 면()이 본영으로 가고 박춘양(朴春陽)과 오수(吳水)는 조기 잡는 곳으로 갔다. 어제 취한 때문에 심기가 몹시 편안치 못했다. 저녁때 흥양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미조항(彌助項) 성윤문(成允文)의 문안편지가 왔는데 [방금 감사(監司)의 공문서를 받고 곧 진성(*진주)으로 가게 되어 인사 가지 못한다] 하고 [그 후임으로는 황언실(黃彦實)이 되었다]고 했다. 웅천의 답장도 왔다. 임금이 내린 유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 어둠 무렵에 서풍이 크게 일어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아들이 떠나간 것을 생각하니 걱정스럽다. 답답함을 어찌 다 말하랴. 봄 기운이 사람을 괴롭히어 몹시 노곤했다.

18일(을묘) 맑음. 식후에 나갔다. 서풍이 크게 불었다. 체찰사의 비밀 공문 3통이 왔는데, 하나는 제주 목(濟州牧)에서 계속 후원해 오는 일에 관한 것이요. 하나는 영등 만호(永登萬戶) 조계종(趙繼宗)을 심문하는데 관한 것이요. 또 하나는 진도(珍島) 전선(戰船)을 아직은 독촉하여 모으지 말라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 저녁에 김국(金國)이 서울서 내려 왔는데, 비밀 공문 2통과 책력 1권을 가지고 오고 기별지도 가지고 왔다. 황득중(黃得中)이 절물을 실어다 바치었다. 절(節)이 술을 가지고 왔다. 땀이 온 몸에 훨씬 배었다.

19일(병진) 맑았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아들 면()이 잘 잤는지 못갔는지 몰라서 밤새도록 궁금했다. 이날 저녁에 들으니 군량을 싣고 오던 낙안(樂安) 배가 바람에 막혀 사랑(蛇梁)에 대었는데 바람이 자야 떠나오리라고 한다. 이날 새벽 경상도 진에 있는 항복한 왜인들을 이곳에 있는 왜인 난여문(亂汝文)들을 시켜 붙잡아다가 목을 자르게 했다. 권수사가 왔다. 장흥, 웅천, 낙양, 흥양, 우우후, 사천들과 함께 부안(扶安)서 온 술을 마셨다. 황득중이 가져온 총통 만들 쇠를 모두 저울로 달아서 보관케 했다.

20일(정사) 맑음. 이른 아침, 조계종이 현풍(玄風) 순군 손풍련(孫風連)에게 소송을 당한 결과 마주 대변하고 공술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가 갔다. 늦게 나가 서류를 처결해서 나누어 보냈다. 입대(入隊)에 관한 공문을 사사로히 만든 죄로 손만세(孫萬世)를 처벌했다. 오후에 활을 7순 쏘았는데 낙안, 녹도가 와서 같이 쏘았다. 비가 오려는 날씨였다. 새벽에 기운이 노곤했다.

21일(무오) 흐리고 새벽에 비가 보슬거리다 늦게 그쳤다. 나가지 않고 혼자 들어앉아 있었다.

22일(기미) 맑고 바람도 없었다. 아침밥을 일찌기 먹고 나가니 웅천과 흥양이 보러 왔다가 흥양은 심기가 좋지 않다고 먼저 돌아갔다. 우우후, 장흥, 낙안, 남도포(南桃浦), 가리포, 여

도(*김인연), 녹도(*송여중) 등이 와서 활을 쓰기에 나도 쏘았다. 손현평(孫絃平)도 왔다. 몹시 취해 가지고 헤어졌다. 이날 밤에 땀을 흘렸다. 봄 기운이 사람을 노곤케 했다. 강소작지(姜所作只)가 그물을 가지러 본영으로 갔다. 충청 수사가 화살감의 대나무를 가져와 바쳤다.

23일(경신) 맑음. 일찌기 아침밥을 먹고 나가서 둔전에서 받아들인 벼를 다시 작석하여 새로 지은 창고에 쌓은 것이 1백 67섬으로, 줄은 것이 48섬이다. 늦게 거제, 고성, 하동, 강진, 회령포(會寧浦)들이 와서 고성에서 가지고 온 술을 같이 마셨다. 웅천이 저녁에 와서 몹시 취했다. 밤 10시쯤 파하고 돌아갔다. 하천수(河千壽), 이진(李璉)들이 왔다. 방답(防踏)이 들어왔다.

24일(신유) 맑음. 식후에 나가 둔전에서 받아들인 벼를 고쳐 작석하는 것을 감독했다. 우수사(*권준(權俊))가 들어왔다. 오후 4시에 비바람이 크게 일었다. 둔전서 받아들인 벼를 다시 작석한 결과 창고에 들어 쌓은 것이 1백 70여 섬으로, 줄은 것이 30여섬이다. 낙안(*선의문(宣義門))이 갈렸다는 기별이 왔다. 방답, 흥양이 왔다. 본영으로 배를 내보내려다가 비바람으로 인해서 중지했다. 밤새도록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몸이 노곤했다.

25일(임술) 비가 주룩 내리다가 낮에 겐다. 장계 초안을 수정했다. 늦게 우수사(*이억기(李億祺))가 오고, 나주 판관(羅州判官 *원종의(元宗義))도 왔다. 장흥 부사(*배흥립(裵興立))가 와서 수군에 관한 사무를 진행하기 곤란한 것은 감사의 처사가 방해된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진이 둔전으로 돌아갔다. 춘절(春節), 복춘(福春), 사화(士花)가 본영을 돌아갔다.

26일(계해) 아침에는 맑더니 저물게 비가 내렸다. 늦게 대청에 나갔다. 여도와 흥양이 와서 백성을 침해하는 영리(營吏)들의 폐단을 이야기했다.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양정언(梁廷彦)과 영리(營吏)의 강기경(姜起敬), 이득종(李得宗), 박취(朴就)들을 중죄로 다스리는 동시에 경상도와 전라도의 영리를 잡아 들이라고 명령했다. 경상 수사가 보러 왔다. 이억고 견내량(見乃梁) 북병에게 긴급 보고가 왔는데 [왜선 1척이 견내량으로부터 와서 해평장(海坪場)에 까지 이른 것을 머물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둔전에서 받아들인 벼 2백 30여섬을 다시 작석한 수가 1백 98섬이다. 줄은 것이 32섬이라고 한다. 낙안에게 작별 술을 대접해 보냈다.

27일(갑자) 흐리다가 늦게 겐다. 이날 녹도 만호(*송여중(宋汝宗))들과 함께 활을 쏘았다. 흥양(*최희량(崔希亮))이 말미를 얻어 가지고 돌아갔다. 둔전에서 받아들인 벼 2백 20여섬을 고쳐 작석한 결과 줄은 것이 여러 섬이었다.

28일(을축) 맑음. 이른 아침에 침을 맞았다. 늦게 나갔더니 장흥과 체찰사의 군관이 왔다. 장흥은 체찰사의 종사관(從事官)이 발행한 군령을 가지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일때문에 왔다고 한다. 또 전라도 수군 중 우도의 수군만은 좌도와 우도로 왔다갔다 하면서 제주와 진도를 성원하라는 명령도 있다고 한다. 참 어이 없다. 조정(朝廷)의 지도가 이럴 수 있는가. 체찰사로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무의미할 수 있는가. 국가의 일이 이렇고 보니 어찌 하랴. 어찌 하랴. 저녁에 거제를 불러다가 일을 물어보고 돌려 보냈다.

29일(병인) 맑음. 아침에 서류 초안을 수정했다. 식후에 나갔더니 우수사와 경상 수사가 장흥과 관찰사의 군관을 데리고 왔다. 경상 우 순찰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30일(정묘) 맑음. 아침에 정사립(鄭思立)으로 하여금 보고문을 쓰게 하여 체찰사에게 보냈다. 장흥이 체찰사에게 갔다. 해가 느직해서 우수사(*이억기(李億祺))가 고하기를 [이제 바람도 온화해졌으니 여기 저기서 돌아다니면서 제때에 경계해야 할 것이라. 자기 부하를 시급히 거느리고 본도(*전라 우도)를 가야겠다]는 것이었다. 그 마음 가짐이 극히 해괴스러워서 그의 군관과 도훈도(都訓導)를 붙잡아다가 곤장 70개를 때렸다. 수사가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견내량에서 북병하고 있기가 마음에 싫으니까 하는 것으로서 우스운 일이 많았다. 저녁에 송희립(宋希立), 노윤발(盧潤發), 이원룡(李元龍)들이 들어왔다. 희립은 술까지 가지고 왔다. 심기가 몹시 좋지 못하여 밤새도록 허한을 흘렸다.

[39] 3월

초 1일(무진) 맑음. 새벽에 망궤례(望闕禮)를 드렸다. 아침에 경상 수사가 와서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늦게 해남 현감(海南縣監) 유형(柳珩)과 임치 첨사(臨淄僉使) 홍건(洪堅), 목포 만호 방수경(方守慶)들을 기일을 어긴 죄로 처벌했다. 해남 만은 새로 부임한 까닭에 매 때리지 않았다.

초 2일(기사) 맑음. 아침에 장계 초본을 수정했다. 보성(寶城 * 안홍국(安弘國))이 들어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공무를 보지 않았다. 기운을 차릴 수 없고 땀이 흐르니 이것이 병의 시초인 것이다.

초 3일(경오) 맑음. 새벽에 이원룡(李元龍)이 본영으로 돌아갔고, 늦게 반관해(潘觀海)가 왔다. 정사립(鄭思立)들을 시켜 장계를 씩웠다. 이날은 명절이라 방답(防踏), 여도(呂島), 녹도(鹿島)와 남도 만호(南桃 萬戶)들을 불러 술과 떡을 먹였다. 일찌기 송희립을 우수사에게 보내어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더니 공손하게 대답하더라고 한다. 땀에 젖었다.

초 4일(신미) 맑음. 아침에 장계를 봉(封)했다. 늦게 보성군수 안홍국을 제 기일에 대어 오지 못한 죄로 처벌했다. 낮에 배를 띄워 바로 소근두(所斤頭)를 거쳐서 경상우수사에게로 가서 그를 불렀다. 경상 좌수사 이운룡(李雲龍)도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그대로 좌리도(佐里島) 바다 가운데서 같이 잤다. 땀이 무시로 흘렀다.

초 5일(임신) 맑다가 구름이 개었다. 새벽 4시쯤에 배를 띄워 환하게 밝은 뒤 우수사가 복병하고 있는 견내량으로 가니 마침 아침 때였다. 식후에 우수사를 만나서 다시 잘못된 것을 말하니 우수사(* 이억기(李億祺)는 모든 것을 사과했다. 나중에 술을 내어서 잔뜩 취해 돌아오다가 이정충(李廷忠)의 장막 아래로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 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또 술을 마셨다. 큰 비가 쏟아지는 통에 나만 먼저 배로 돌아왔다. 우수사는 취해 쓰러져 정신을 못차리므로 작별도 못하고 왔다. 우스웠다. 배에 돌아오니 회(), 해(), 울(蔚)과 수원(壽元)이 모두들 와 있었다. 비를 맞으면서 진중으로 돌아온 즉, 김훈(金渾)이 와 있었다.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정에야 잤다. 계집 종 덕금(德今), 한대(漢代), 효대(孝代)와 은진(恩津)에 있는 계집종도 왔다.

초 6일(계유) 흐렸으나 비는 안 왔다. 새벽에 한대(漢代)를 불러서 사건의 내용을 물어 보았다. 아침에 기분이 좋지 못했다. 식후에 하동(* 신진), 고성(* 조응도)이 돌아갔다. 늦게 함평(* 손경지), 해남(* 유형)이 하직을 고하고 남도포(南桃浦 * 강응표(姜應彪))도 하직을 고했는데, 기일을 5월 초 10일로 정했다. 우우후와 강진을 초8일 지낸 뒤에 나가도록 일렀다. 함평, 남해(* 박대남(朴大男)), 다경포(多慶浦 * 윤승남(尹承男)) 만호들이 칼을 연습했다. 땀이 계속 흘렀다. 사슴 3마리를 사냥해 왔다.

초 7일(갑술) 맑음. 새벽에 땀이 흘렀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가리포, 방답, 여도가 보고 갔다. 머리를 꽤 오래 빗었다. 녹도가 노루 2마리를 잡아 왔다.

초 8일(을해) 맑음. 아침에 안골포(安骨浦 * 우수(禹壽)) 만호와 가리포(加里浦 * 이응표(李應彪))가 각각 큰 사슴 1마리씩을 보내 왔다.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 경상 수사, 좌수사, 가리포, 방답, 평산포, 여도, 우우후, 경상 우후, 강진들이 와서 같이 종일 취했다가 헤어졌다. 저녁에 잠시 비가 내렸다.

초 9일(병자) 아침에 맑았다가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아침 우우후와 강진이 돌아간다고 하기에 술을 먹었더니 잔뜩 취하여 우후는 돌아가지 못했다. 저녁에 좌수사가 왔기에 작별 술잔을 나누었더니 취하여 대청에서 잤다. 개(介) * 어떤 사람의 이름인듯 같이 잤다.

초 10일(정축) 비. 비. 아침 좌수사를 청해 와서 이별잔을 나누며 전송했더니 종일 크게 취하여 나가지 못했다. 무시로 땀이 났다.

11일(무인) 흐림. 해(), 회(), 완(莞) 및 수원(壽元)이 계집종 세 사람을 데리고 떠났다. 이날 저녁 방답 첨사(* 장인(張麟))가 성내지 아니할 일에 성을 내어 지휘선의 급수군에게 곤장을 때린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방답의 군관과 이방(吏房)을 붙잡아들여 매를 때렸다. 군관은 20대, 이방은 50대, 늦게 갈려 가는 권천성(權天城)이 하직을 고했다. 새로 오는 천성은 체찰사 공문에 의해서 병사에게 체포되어 있는 중이다. 나주 판관(羅州 判官)이 왔기에 술을 먹여 보냈다.

12일(기묘) 맑음. 아침 식사후 노곤하여 잠깐 잠을 잤다. 경상 수사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여도, 금갑도(金甲島 * 이정표(李廷彪)) 나주 판관이 왔는데, 군관들이 술을 내 놓았다. 저녁에 소국진(蘇國秦)이 체찰사에게서 돌아왔는데, 그 회답에는 우도 수군을 본도로 보내라는 것이 본의가 아니라고 하였다. 우스웠다. 또한 들으니 원흥(元晞 * 원균(元均))은 곤장 40대를 맞고 장흥은 20대를 맞았다고 한다.

13일(경진) 종일토록 비, 비. 저녁녘에 도착한 견내량 복병이 급히 알려 오기를 [왜선이 계속해서 나온다]하므로 여도 만호와 금갑도 만호를 뽑아 보냈다.

14일(신사) 곳은비가 개지 않았다. 새벽에 삼도(三道)의 보고가 왔는데 [견내량 근처에 거제 땅 세포(細浦 * 사등면 성포리) 왜선 5척과 고선땅 5척이 와서 상륙했다]고 하므로 삼도의 여러 장수들에게 5척을 더 뽑아 보내도록 명령했다. 늦게 나가서 각처의 서류를 처결해 보냈다. 아침 나절 군량에 관한 회계를 맞추어 보았다. 방답과 녹도가 보고 갔다. 체찰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서류로 꾸었다. 촌꾼이 심해서 밤새도록 땀을 흘렸다.

15일(임오) 맑음. 새벽에 망궤례를 드렸다. 가리포, 방답, 녹도가 와서 참례하고, 우수사와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다. 늦게 경상 수사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취해 갔는데, 갈때 아랫방에서 덕(德)과 무엇을 수군거렸다고 한다. 이날 저녁에 바닷달이 어슴푸레 밝혔다. 피곤기가 심해서 밤새도록 허한이 흘렸다. 자정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낮에 곤해서 머리를 빗었다. 땀이 무시로 흘렸다.

16일(계미) 비가 퍼붓듯이 종일 그치지 않았다. 오전 7시쯤에 동남풍이 몹시 불어 지붕이 걷힌 데가 많았고 창문 종이 떨어져 비가 방 안으로 뿌려 들므로 사람이 피로와 견딜 수가 없었다. 오정때에야 바람이 그쳤다. 저녁나절 군관들을 불러다가 술을 먹였다. 자정에야 비가 잠깐 그쳤다. 어제같이 땀을 흘렸다.

17일(갑신) 종일 가랑비가 오고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늦게 나주 판관이 왔기에 술을 취하도록 먹여 보냈다. 어둠에 박자방(朴自邦)이 들어왔다. 이날 밤에 허한이 등을 적시고 옷도 두 겹이 다 젖고 이부자리도 젖었다. 심기가 좋지 않았다.

18일(을유) 맑았으나 종일 동풍이 불고 일기가 몹시 차가웠다. 늦게 나가서 소지(所志) 들 어온 것들을 처결했다. 방답, 금갑, 회령포(會寧浦 * 민정봉(閔廷鵬)) 옥포(玉浦 * 이당(李曇))들이 보러 왔다. 활 10순을 쏘았다. 이날 밤에 바닷달은 어슴푸레 비치고 밤 기운이 몹시 추운데 자려야 잠이 오지 않고 앉으나 누우나 편안하지 못했다. 몸이 좋지 않았다.

19일(병술) 맑았으나 동풍이 크게 불고 일가가 매우 차가웠다. 아침에 새로 만든 가야금에 줄을 매었다. 늦게 보성이 모자라핀을 검사할 일로 말미를 받았다. 김훈(金渾)도 같은 배로 나갔다. 종 경(京)도 같이 갔다. 정양(丁良)이 불일이 있어 나왔다가 곧 돌아갔다. 저녁에 가리포, 나주 판관이 보러 왔기에 술을 취하도록 먹여 보냈다. 어두운 후부터 풍세가 몹시 사나웠다.

20일(정해) 바람이 험하고 비가 죽죽 내려 온종일 나가지 않았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바람막이를 2개 만들어 달았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옷과 이불에 땀이 젖었다.

21일(무자) 종일 큰 비가 쏟아졌다. 초저녁에 토사곽란을 만나 한시간이나 고통하다가 자정에 조금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몸을 뒤척거리며 공연한 고생을 하는 듯 생각하니 한스럽기 짝이 없었다. 이날 너무나 심심해서 군관 송희립(宋希立), 김대복(金大福), 오철(吳轍)들을 불러다가 종정도(從政圖)를 놀았다. 바람막이 3개를 만들어 달았는데 이연량(李彦良)과 김응겸(金應謙)이 만드는 것을 감독했다. 자정에야 비가 그치고 오전 2시쯤에 이지러진 달이 비치었다. 방 밖에 나가서 거니는데 몸이 몹시 피곤했다.

22일(기축) 맑음. 아침에 종 금(今)이를 시켜서 머리를 빗겼었다. 늦게 우수사(*이억기)와 경상수사(*권준)가 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들으니 작은 고래가 죽어서 섬으로 떠 왔다 하므로 박자방(朴自邦)을 보냈다. 이날 저녁에 무시로 땀이 났다.

23일(경인) 새벽에 정사립(鄭思立)이 와서 물고기로 기름을 많이 짜서 가져 왔다고 했다. 오전 4시쯤 몸이 편치 않아 금(今)이를 불러 머리를 굵게 했다. 늦게 나가서 각처의 서류를 처결하고 활 10순을 쏘았다. 조방장(助防將) 김완(金浣)이 들어왔다. 충청도 수군의 배 8척도 들어왔다. 우후도 왔다. 종 금(今)이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가 안녕하시다고 했다. 밤 9시 지나 영등(永登 * 조계종(趙繼宗))이 그의 딸을 데리고, 술병을 들고 왔다고 하나 나는 보지 않았다. 11시 지나 돌아갔다. 이날 처음으로 미역을 댔다. 자정에야 잤는데, 땀에 옷이 흠뻑 젖어서 갈아 입고 잤다.

24일(신묘) 맑음. 새벽에 미역을 따라 나갔다. 현 활집은 베로 만든 옷이 8점, 무명으로 만든 것이 2점이 있었는데, 그중의 활집 하나를 고쳐 만들고 감을 내 주었다. 아침 식사후나 나가서 마량(馬梁) 첨사 김응황(金應璜), 파지도(波知島 * 송세응(宋世應)), 결성(結城) 현감 손안국(孫安國)들을 처벌했다. 늦게 우후가 가져 온 술을 방답, 평산포, 여포, 녹도, 목포와 함께 마셨다. 나주 발판 어운급(魚雲掇)은 4월 15일까지 기한을 정하고 말미를 주어서 내 보냈다. 어둠에 심히 피곤하고 무시로 땀이 흐르니, 비가 올 징조였다.

25일(임진) 새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종일 퍼부어 잠시도 그치지 않았다. 다락에 기대

어 저녁나절을 보냈는데 심회가 언짢았다. 머리를 꽤 오랫동안 빗었다. 낮에는 땀이 옷에만 배더니 밤에는 옷 두겹이 젖고 다시 방바닥에까지 흘렀다.

26일(계사) 날이 맑고 서풍이 불었다. 늦게 나갔더니 조방장과 방답, 녹도가 와서 활을 쓰고 경상 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체찰사의 명령이 왔는데, 전일 우도(*전라 우도)의 수군을 돌려 보내라고 한 것은 회계(回啓)를 잘못 본 까닭이라는 것이었다. 우스웠다.

27일(갑오) 날이 맑고 남풍이 불었다. 늦게 나가서 활을 쏘았다. 우후와 방답도 오고, 충청 우후, 마량 첨사, 임치(臨淄) 첨사, 결성(結城) 현감, 파지도 권관(波知島 權官)들이 모두 왔기에 술을 먹어 보냈다. 저녁때 신사과(愼司果)와 여필(汝弼)이 한 배로 들어와서 어머님이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고 다행하기 이를 길 없었다.

28일(을미) 곳은 비가 종일 개지 않았다. 나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나누어 보냈다. 충청도 여러 배의 사라들을 시켜 다시금 방비를 갖추게 하였다.

29일(병신) 곳은 비가 개지 않았다. 늦게 부찰사(副察使 *한효순(韓孝純))가 성주(星州)로 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통지가 왔다.

[40] 4월

초 1일(정유) 큰 비가 내렸다. 신사과(愼司果)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종일토록 비가 왔다.

초 2일(무술) 늦게 날이 개었다. 저물녘에 경상 수사가 부찰사를 마중하러 나갔는데, 신사과도 같은 배로 갔다. 이날밤에 몸이 몹시 좋지 못했다.

초 3일(기해) 맑았으나 종일 동풍이 불었다. 어제저녁 견내량에 있는 북병의 긴급 보고에 [왜놈 4명이 부산(釜山)으로부터 장사하러 나갔다가 바람에 불려 표류되었다] 하므로 새벽에 녹도 만호 송여중(宋汝悤)을 보내어 그 연유를 물어보게 했던 바, 그 내용을 탐사해본 즉, 정탐하러 왔던 것이 명확하므로 목을 베어죽였다. 우수사를 가보려다 몸이 불편하여 못 갔다.

초 4일(경자) 흐림. 아침에 오철(吳轍 *충무공의 군관)이 나갔고 종 금(今)이도 같이 갔다. 아침에 체찰사의 공문을 연폭으로 해서 벽에 붙였다. 여러 장수들의 표신(標信)을 고쳤다. 충청도 부대에 목책(木柵)을 쳤다. 늦게 우수사(*이억기)를 가 보고 취해서 이야기하다 돌아왔다. 8시가 지나서야 저녁을 먹었다. 밤 10시께 잠깐 비가 내리다 그쳤다.

초 5일(신축) 맑음. 부찰사가 들어왔다.

초 6일(임인)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부찰사가 활 연습을 했다. 저녁에 나와 우수사가 들어가 앉아 군인들에게 음식을 풀어 먹였다.

초 7일(계묘) 맑음. 부찰사가 나가 앉아 상을 나누어 주었다. 새벽에 부산 사람이 들어 왔는데 명나라 수석 사신(*이종성(李宗城))이 돌아났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부찰사가 입봉(立峰)에 올라갔다. 점심후 두 수사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초 8일(갑진) 종일 비, 비. 늦게 들어가 부찰사와 마주 앉아 술을 마셨다. 몹시 취하여 관등(觀燈)하고 헤어졌다.

초 9일(을사) 맑음. 이른 아침에 부찰사가 떠나기 때문에 배를 타고 포구로 나가 같이 배 위에서 이야기하며 작별했다.

초 10일(병오) 맑음. 아침에 어사(御使)가 들어온다는 기별을 들었기 때문에 수사 이하 포구에 나가 기다렸다. 조봉(趙鵬)이 보러 왔다. 그의 모급을 본즉, 오래 학질을 앓아서 몹시 말랐다. 매우 딱했다. 늦게 어사가 들어와 같이 앉아 이야기하고 불을 밝힌 다음에 헤어졌다.

11일(정미) 맑음. 어사와 아침을 들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늦게 장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활 10순을 쏘았다.

12일(무신) 맑음. 아침 후, 어사가 밥을 지어서 군사들을 먹인 뒤에 활 10순을 쏘고 종일 이야기했다.

13일(기유) 맑음. 아침밥을 어사와 같이 먹었다. 늦게 포구로 나가니 남풍이 세게 불어 배가 갈 수가 없었다. 선인암(仙人岩)으로 가서 종일 이야기하다가 어두워져서야 작별하고 저물어 거망포(巨網浦)에 이르렀다. 잘 갔는지 모르겠다.

14일(경술) 종일 비, 비. 아침 식사 후에 나갔다. 홍주 판관(洪州 判官 * 박윤(朴崙))과 당진 만호(唐津萬戶 * 조효열(趙孝悅))가 교서에 숙배한 뒤에 충청 우후 원유남(元裕男)은 곤장 40대를 때리고 당진 만호도 같이 죄를 받았다.

15일(신해) 맑음. 아침에 단오날 진상할 물품을 봉해서 곽언수(郭彦守)에게 주어 보냈다. 영의정(* 유성룡), 정영부사(鄭領府事 * 判府事의 잘못이니 鄭琢), 김판서 명원(金判書 命元), 윤자신(尹自新), 조사척(趙士), 신식(申湜), 남이공(南以恭)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16일(임자) 맑음. 아침 식후에 나가서 난여문(亂汝文 * 南右衛門)들을 불러다가 불지른 왜놈 3명이 누구누구인가를 물어본 뒤 붙들어가다가 죽여 없앴다. 우수사, 경상 수사와 같이 앉아서 여필이 가져온 술을 마셨다. 가리포, 방답도 같이 마셨는데 밤이 들어서 헤어졌다. 이날 밤 바다에는 달빛이 차게 비치고 티끌 한점 일지 않았다. 다시 땀을 흘렸다.

17일(계축) 맑음. 아침 식후에 여필과 면이 종을 데리고 돌아갔다. 늦게 각 고을 공문서를 처결해 보냈다. 이날 저녁 울이 안 위를 가보고 왔다.

18일(갑인) 맑음. 식전에 각 고을 공문과 소들을 처결해 보냈다. 늦게 충청 우후(* 원유남(元裕男)), 경상 우수(* 이의득(李義得)), 방답(* 장인(張麟)), 김조방장(* 김완(金浣))과 활 20순을 쏘았다. 마도(馬島) 군관이 복병하고 있는 곳에 투항해 온 왜인 1명을 붙잡아 왔다.

19일(을묘) 맑음. 습열(濕熱)로 인해서 침을 20여군데나 맞았더니 속에 번열(煩熱)이 나는 것 같아 종일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어둑어둑에 영등(永登)이 와 보고 돌아갔다. 종 목년(木年)과 금화(金花), 풍진(風振)들이 현신했다. 이날 아침 남여문(南汝文)을 통하여 수길(秀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기쁘기 한량없으나 믿을 말이 못된다. 이 소문이 진작부터 퍼졌었는데 아직 확실한 기별은 아니 왔다.

20일(병진) 맑음. 경상 수사가 와서 내일 서로 만나자고 청했다. 활 10순을 쏘았다.

21일(정사) 맑음. 아침 식후에 경상 수사의 진으로 가는 우수사(* 이억기)진에 들러 우수사와 함께 갔다. 종일 활을 쏘고 잔뜩 취해서 돌아갔다. 신조방장(* 호(浩))이 병으로 자기 잠으로 돌아갔다. 영인(永人 * 누구인지 모르겠음)이 왔다.

22일(무오) 맑음. 아침 식후에 나갔다. 부산의 허내은만(許內隱萬)이 * 고목(告目)을 보냈는데 [명나라 수석 사신(* 이종성)은 달아나고 부사(副使 * 양방형(楊方亨))만 전과 같이 왜인의 진중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4월 초8일에 달아난 사유를 위해 아뢰었다]고 한다. 김조방장이 와서 노천기(盧天紀)가 술을 먹고 주책없이 굴다가 본영 진무(鎭撫), 황인수(黃仁壽), 성복(成卜)들에게서 욕을 당했다고 아뢰므로 곤장 30대를 때렸다. 활 10순을 쏘았다.

23일(기미) 흐리다가 늦게 갠다. 아침에 김침지 경록(景祿)이 들어왔기에 일찍 아침을 먹고 나가 앉아 같이 술을 마셨다. 늦게 군중에게 힘센 사람을 뽑아서 씨름을 시켰더니, 성복이란 자가 판을 치므로 상으로 쌀 말이나 주었다. 활 10순을 쏘았는데, 충청 우후 원유남(元裕男), 마량 첨사(馬梁僉使 * 김응황(金應璜)), 당진 만호(* 조효열(趙孝悅)), 홍주 판관(洪州 判官 * 박윤(朴崙)), 결정 현감(* 손안국(孫安國)), 파지도 권관(* 송세응(宋世應)), 옥포 만호(* 이담(李曇))들도 같이 쏘았다. 자정에 영인(永人)이 돌아왔다.

24일(경신) 맑음. 식후에 탕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여러 장수들과 같이 이야기했다.

25일(신유) 맑음. 남풍이 크게 불었다. 일찌기 목욕탕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우수사가 와보고 돌아갔다. 또 목욕탕에 들어갔다 물이 너무 뜨거워서 곧바로 나왔다.

26일(임술) 맑음. 아침에 들으니 체찰사 군관이 경상도로 갔다고 한다. 식후에 목욕을 했다. 늦게 경상 수사가 와보고 돌아갔다. 체찰사 군관(吳)도 왔다. 김양간(金良看)이 소를 실어올 일로 본영으로 갔다.

27일(계해) 맑음. 저녁에 목욕을 한 차례 했다. 체찰사의 회답 공문이 왔다.

28일(갑자) 맑음. 아침 저녁 두 차례 목욕을 했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보러 왔었다. 경상 수사는 땀을 뜨느라고 오지 못했다.

29일(을축) 맑음. 저녁에 목욕을 한차례했다. 남여문(南汝文)으로 하여금 투항한 왜인 사고여음(沙古汝音)의 목을 베게 했다.

30일(병인) 맑음. 저녁에 목욕을 한 차례 했다. 우수사가 보러 왔다. 충청 우후도 와보고 돌아갔다. 늦게 부산의 허내은만(許內隱萬)의 고목(告目)이 왔는데, 행장(行長)이 군사를 거두어 가지고 갈 의사인 것 같다고 했다. 김경록(金景祿)이 돌아갔다. 어머니님의 편지가 왔다.